

요약

자연재해 위험의 급격한 증가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미국에서는 초대형 재난의 상시화로 민간 보험회사의 인수 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국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Cat Nat' 제도의 효율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향후 자연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민간·지역사회의 통합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면서,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¹⁾
 -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4,170억 달러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약 15% 증가하며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총 손실의 약 63%인 2,627억 달러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보장 격차(Protection Gap)'로 남아, 개인과 기업의 직접 부담이 확대되며,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해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부담한 손실(Insured Loss)은 1,54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체 경제적 피해액의 약 37%에 불과함
 -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고액 손실을 유발하는 대형 재난이 연간 6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재난이 일상화되었고, 심각한 대류 폭풍(SCS)과 같은 예측 불허의 기상 현상이 주요 손실 원인으로 분석됨
 - 보험회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인수 제한과 시장 철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수불가능(Uninsurable)'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고, 주택담보대출 중단, 관련 산업의 생산 차질 등 연쇄적인 경제 충격 가능성이 커지자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고위험 지역의 인수를 철수함
 - 보건·연금 등 공공 부문의 재정 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장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함
- 미국은 초대형 재난의 상시화로 민간 보험시장의 인수 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보험 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보험 절벽(Insurance Cliff)' 현상이 나타남²⁾
 - 2025년 1월 초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400억 달러의 보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미국 산불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보험 피해액을 기록함³⁾

1) Gallagher Re(2025), "Natural Catastrophe and Climate Report 2024"

2) Yale Law Journal(2025), "The Uninsurable Future: Climate Change and the Destabilization of Insurance Markets"

3) Swiss Re(2025), "Natural catastrophes in 2024: record-high insured losses and the protection gap"

- 산불 위험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State Farm, Allstate 등 미국 주요 보험회사들은 캘리포니아 내 수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인수 중단 및 기존 계약 갱신 거절(Non-renewal) 조치를 전면 시행함⁴⁾
 - Allstate는 2022년 말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의 신규 인수를 중단했고, 드론의 원격 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지붕 상태나 주변 인화 물질 여부까지 분석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보험 갱신 여부를 결정함⁵⁾
- 민간 보험시장에서 배제된 고위험 자산이 공적 보험제도인 'FAIR Plan'으로 집중 유입되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잠재적 보상 책임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⁶⁾
 - FAIR Plan의 총 위험노출액(Exposure)은 2025년 9월 기준 7,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산불 고위험 지역의 가입 증가 속도가 저위험 지역 대비 1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 위험 집중도가 크게 높아짐
 -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방재 인프라 구축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되었으며,⁷⁾ 공공 재보험(Public Reinsurance)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됨⁸⁾

○ 프랑스는 국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Cat Nat'⁹⁾ 제도를 운영 중이나, 기후 리스크의 확대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들이 구조적인 '전략적 디-리스크링(Strategic De-risking)'을 강화함¹⁰⁾

- 최근 가뭄과 폭우의 반복으로 인한 '지반 수축 및 팽창(Shrink-Swell)'이 빈번해지며 주택 기초 균열, 구조물 변형 등 건축물 손상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프랑스 전체 개인 주택의 약 54%에 해당하는 1,110만 가구가 지반 침하 중·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억 유로로 추정됨¹¹⁾
-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적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AXA, Groupama 등 보험회사들은 고정밀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노후 주택에 대해 기초 보강 공사 완료 증빙을 보험 인수의 핵심 요건으로 반영함¹²⁾
 - 프랑스 보험회사들은 지질광물조사국(BRGM)이 제작한 1:10,000 축척의 고해상도 지도를 활용해 개별 필지 단위까지 리스크를 세분화해 관리함¹³⁾
- 프랑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자연재해 특별 할증률(Surcharge)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인상함¹⁴⁾

○ 제네바 협회(Geneva Association)는 기상현상에 따른 위험을 저감하고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¹⁵⁾

4) The Wall Street Journal(2024), "Insurers Are Spying on Your Home From the Sky"
5) The Wall Street Journal(2024), "The Eye in the Sky Is Monitoring Your Roof"
6) McKinsey&Company(2025), "Forging a resilient future for California's homeowners and insurers"
7) FEMA(2024),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with Nature-Based Solutions"
8) NAIC(2025), "Trial by Fire: Reimagining Wildfire Insurance in California"
9) 프랑스의 Cat Nat제도는 정부의 지급 보증을 기반으로 국영재보험사인 CCR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10) BGRM(2023), "Adapter le système assurantiel français face à l'évolution des risques climatiques"
11) European Environment Agency(2025), "Climate-related economic losses"
12) Sénat de France(2024), "Rapport d'information n° 628: 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retrait-gonflement des argiles:un régime à la dérive"
13) BGRM(2023), "CARTAGILE: mapping the risk of clay shrinkage and swelling in the Greater Rennes area Share"
14) Sovos(2024), "France: Substantial CATNAT premium rate increase as of January 2025"
15) The Geneva Association(2025), "Safeguarding Home Insurance: Reducing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extreme weather"